

##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

유 상 희  
원광보건대학 치기공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Sang-Hui Yu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 [Abstract]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This study aimed to furnish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oral health of the elderly by conducting research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ure satisfaction and the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of elderly people with removable dentures.

The study performed research involving 246 elderly people who were living in Jeonju and Iksan, jeonbuk, and who were 65 years old or over from August 1 to December 5, 2007. The research method was a face-to-face interview.

1. The denture satisfaction of respondents for the research averaged  $3.74 \pm 0.69$ ,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the cohabitant family type, the procurement of living expenses, the performance of leisure activity, the period of current denture use, the number of denture changes, the experience during a dentist visit for denture maintenance, the experience of restricted activity due to annual oral diseases, and the opinions about denture prices.

2. 48.8%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ir oral health status was good,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rocurement of living expenses, the total period of denture use, the period of current denture use, the number of denture changes, the experience of restricted activity due to annual oral diseases, and the opinions about denture prices.

3. The most highly influential variable affecting denture satisfaction was the opinions about denture prices( $R=33.7\%$ ).

교신저자	성명	유 상 희	전화	010-8648-0332	E-mail	wsh7901@naver.com
	주소	전북 익산시 어양동 부영 2차 아파트 203동 507호				

4. The most highly influential variable affecting the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was the educational level(R=17.3%).

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mor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dentures the more they thought their oral health status was in good shape.

○Key word : Denture satisfaction,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 I. 서 론

21세기에 이르러 제3세계 국가들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충분한 식이와 영양이 공급되고 또한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으로 유래없는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최순례 등, 2005). 그러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복지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장익준 등, 2006) 노인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진행 중이며 노인 복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김남희, 2003).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노인 문제와 함께 노인의 구강건강문제가 집중적인 연구과제로 등장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한 노인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종배 등, 2004).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이며, 노인의 건강에서 소화와 영양섭취에 관련 깊은 구강 건강은 필수적인 요소(서순규, 1992)라는 점에서 노인의 구강건강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65-74세에서 45.2%, 75세 이상에서 60.2%가 의치를 장착하고 있었고, 부분의치필요자율은 65-74세에서 21.6%, 75세 이상에서 29.8%이었고, 전부의치필요자율은 65-74세에서 4.5%, 75세 이상에서 15.2%이었다. 또한 2004년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의 구강건강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치과치료는 완전의치와 부분의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치는 노인의 구강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치장착으로 인해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치아상실로 야기 될 수 있는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Boretti, 1995)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인 건강인식도는 의료인의 임상적인 질병 평가보다 삶의 질과 안녕(well-being)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자가 될 수 있으며(Willits & Crider, 1988),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구강보건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김영남 등, 2005).

노인들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노인의 구강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치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치과의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응석 등(2001)의 연구와 대학병원 치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류동희 등(2000)의 연구,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최순례 등(2005), 양정승 등(2006)의 연구가 있다. 한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연관된 요인의 연구는 서울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의 주관적 구강증상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김남희 등, 2006), 저소득층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김영남과 권호근, 2004)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의치만족도와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노인들의 구강건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치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향후 의치장착 노인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노인구강보건관리체계 발전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였으며, 대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철성 의치 장착 노인 246명이었다. 편의 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한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요양시설에 3명의 훈련된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치관련 특성, 의치만족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등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조사하였으며, 의치관련 특성으로 의치종류, 의치 총 사용기간, 현재의치 사용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의치 만족도는 반용석 등(2006)이 사용한 가철성 의치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자가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의치만족도는 크게 일반적인 치료만족도, 의치고정에 대한 만족도, 통증에 대한 만족도, 심미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57로 나타났다. 의치만족도는 5점 Likert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를 4점, '그저 그렇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부정으로 구성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응답점수를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현재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해 '매우 건강하다'를 5점, '건강하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건강하지 못하다'를 2점,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를 1점으로 한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에 따르는 교차분석법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의치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를 시행하였으며, 분산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변수들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분석상 편의를 위해 '건강함(매우 건강하다, 건강하다)', '보통', '건강하지 못함(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의 3점 척도로 재범주화하였으며, 의치만족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산한 후 전체문항수로 나눈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였다.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치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연관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의치만족도 점수를 Roth 등(2003)의 분류에 따라 2.5점 미만을 불만족군, 2.5-3.5점을 보통군, 그 이상을 만족군으로 재범주화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dows ver. 11.0(SPSS Inc, USA)이었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 III. 연구 성적

###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5.2%(62명), 여자 74.8%(184명)로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은 최소 65세에서 최고 98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78.1세이었고, 75세 이상 연령계층이 73.0%로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자	62	25.2
	여 자	184	74.8
연령계층	65-74세	66	27.0
	75세 이상	178	73.0
교육수준	무학	105	44.5
	초졸(중퇴 포함)	68	28.8
	중졸 이상	63	26.7
동거가족형태	혼자	59	24.0
	배우자	52	21.1
	자녀와 기타 가족	41	16.7
	요양시설	94	38.2
생활비 조달	본인수입, 연금, 퇴직금	72	30.5
	자녀	70	29.7
	기초생활수급자	94	39.8
월평균 생활비	10만원 미만	94	39.5
	10-30만원 미만	55	23.1
	30만원 이상	89	37.4
종 교	유	188	76.4
	무	58	23.6
흡 연	흡연	31	12.9
	비흡연	209	87.1
여가활동	활동	214	87.0
	비활동	32	13.0

## 2. 연구대상자의 의치관련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의치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의치 종류는 한 악만 부분의치 또는 완전의치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2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하악 모두 완전의치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2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치 총 사용기간은 11년 이상인 군이 46.9%, 현재 의치 사용기간은 2-5년인 군이 48.4%로 많았으며, 의치 제작 횟수는 1회가 42.6%로 가장 많았고, 2회가 33.9%,

3회 이상이 23.6%로 조사되었다. 의치진료기관은 74.4%가 치과병(의)원이었으며, 의치관리로 인해 치과방문을 한 적이 있는 대상자가 52.8%, 지난 1년간 구강질환으로 인해 활동제한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자가 12.2%로 나타났다. 의치가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42.9%,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57.1%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의치관련 특성

특 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의치 종류	한악만 부분 또는 완전의치	70	28.5
	상하악 부분 및 완전의치	58	23.6
	상하악 모두 부분의치	56	22.8
	상하악 모두 완전의치	62	25.2
의치 총 사용기간	5년 이하	83	33.9
	6-10년	47	19.2
	11년 이상	115	46.9
현재의치 사용기간	1년 이하	53	21.7
	2-5년	118	48.4
	6년 이상	73	29.9
의치제작 횟수	1회	103	42.6
	2회	82	33.9
	3회 이상	57	23.6
의치진료기관	치과병(의)원	183	74.4
	무자격 구강진료업소	63	25.6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	유	116	52.8
	무	130	47.2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	유	30	12.2
	무	216	87.8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	비싸다	103	42.9
	적당하다	137	57.1

###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

표 3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의치만족도는 3.74점으로 나타났으며(표 제시하지 않음), 교육수준, 동거가족형태, 생활비 조달형태, 여가활동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여 무학인 군과 그 이상인 군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p=0.032$ ), 동거가족형태의 경우 배우자와 생활하는 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혼자 생활하는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0$ ). 생활비 조달의 경우 자녀의 부양을 받는 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기초생활수급자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p=0.028$ ), 여가활동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3$ ).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

특 성	구 분	의치만족도*	p-값**
성 별	남 자	3.83 ± 0.61	0.242
	여 자	3.71 ± 0.72	
연령계층	65-74세	3.77 ± 0.64	0.642
	75세 이상	3.73 ± 0.72	
교육수준	무학	3.61 ± 0.80 <sup>a</sup>	0.032
	초졸(중퇴 포함)	3.84 ± 0.62 <sup>b</sup>	
	중졸 이상	3.86 ± 0.54 <sup>a</sup>	
동거가족형태	혼자	3.53 ± 0.84 <sup>a</sup>	0.010
	배우자	3.92 ± 0.61 <sup>b</sup>	
	자녀와 기타 가족	3.88 ± 0.55 <sup>b</sup>	
	요양시설	3.71 ± 0.65 <sup>ab</sup>	
생활비 조달	본인수입, 연금, 퇴직금	3.74 ± 0.65 <sup>ab</sup>	0.028
	자녀	3.88 ± 0.57 <sup>a</sup>	
	기초생활수급자	3.60 ± 0.78 <sup>b</sup>	
월평균 생활비	10만원 미만	3.74 ± 0.64	0.087
	10-30만원 미만	3.57 ± 0.86	
	30만원 이상	3.83 ± 0.62	
종 교	유	3.71 ± 0.70	0.305
	무	3.82 ± 0.65	
흡 연	흡연	3.60 ± 0.90	0.353
	비흡연	3.76 ± 0.66	
여가활동	활동	3.79 ± 0.67	0.003
	비활동	3.40 ± 0.76	

\*5점 Likert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최대 5점, 최소 1점).

\*\*p-값은 t-test 또는 one-way ANOVA에 의해 계산되었음.

<sup>ab</sup> Duncan의 사후검정결과(같은 문자인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음).

#### 4. 연구대상자의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

표 4는 연구대상자들의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의치 사용기간이 2-5년인 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1년 이하인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05), 의치제작 횟수가 2회인 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3회 이상인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7).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그리고 지난 1년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각각 p=0.001, p=0.000). 또한 의치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군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군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표 4〉 연구대상자의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

특 성	구 분	의치만족도*	p-값**
의치종류	한악만 부분 또는 완전의치	3.84 ± 0.74	0.201
	상하악 부분 및 완전의치	3.74 ± 0.62	
	상하악 모두 부분의치	3.77 ± 0.59	
	상하악 모두 완전의치	3.59 ± 0.77	
의치 총 사용기간	5년 이하	3.77 ± 0.68	0.250
	6-10년	3.86 ± 0.66	
	11년 이상	3.67 ± 0.71	
현재의치 사용기간	1년 이하	3.48 ± 0.78 <sup>a</sup>	0.005
	2-5년	3.83 ± 0.62 <sup>b</sup>	
	6년 이상	3.80 ± 0.68 <sup>b</sup>	
의치제작 횟수	1회	3.81 ± 0.68 <sup>a</sup>	0.017
	2회	3.82 ± 0.64 <sup>a</sup>	
	3회 이상	3.52 ± 0.77 <sup>b</sup>	
의치진료기관	치과병(의)원	3.70 ± 0.69	0.092
	무자격 구강진료업소	3.87 ± 0.68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	유	3.60 ± 0.72	0.001
	무	3.89 ± 0.62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	유	3.17 ± 0.79	0.000
	무	3.82 ± 0.64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	비싸다	3.50 ± 0.68	0.000
	적당하다	3.94 ± 0.65	

\*5점 Likert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최대 5점, 최소 1점).

\*\*p-값은 t-test 또는 one-way ANOVA에 의해 계산되었음.

ab Duncan의 사후검정결과(같은 문자인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음).

###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전체 조사대상자의 48.8%가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고, 14.6%가 보통이다, 36.6%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표 제시하지 않음).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

강건강상태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생활비 조달의 경우 본인의 수입, 연금, 퇴직금에 의해 생활하는 군의 경우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36.1%로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경우의 54.3%, 기초생활수급자 군의 53.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p=0.028), 다른 특성들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특 성	구 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p-값*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못함	
성 별	남 자	45.2(28)	16.1(10)	38.7(24)	0.798
	여 자	50.0(92)	14.1(26)	35.9(66)	
연령계층	65-74세	36.4(24)	18.2(12)	45.5(30)	0.062
	75세 이상	53.4(95)	13.5(24)	33.1(59)	
교육수준	무학	50.5(53)	11.4(12)	38.1(40)	0.212
	초졸(중퇴 포함)	50.0(34)	8.8(6)	41.2(28)	
	중졸 이상	42.9(27)	22.2(14)	34.9(22)	
동거가족형태	혼자	39.0(23)	16.9(10)	44.1(26)	0.059
	배우자	42.3(22)	11.5(6)	46.2(24)	
	자녀와 기타 가족	41.5(17)	19.5(8)	39.0(16)	
	요양시설	61.7(58)	12.8(12)	25.5(24)	
생활비 조달	본인수입, 연금, 퇴직금	36.1(26)	11.1(8)	52.8(38)	0.028
	자녀	54.3(38)	17.1(12)	28.6(20)	
	기초생활수급자	53.2(50)	14.9(14)	31.9(30)	
월평균 생활비	10만원 미만	55.3(52)	14.9(14)	29.8(28)	0.253
	10-30만원 미만	49.1(27)	14.5(8)	36.4(20)	
	30만원 이상	39.3(35)	15.7(14)	44.9(40)	
종 교	유	50.0(94)	16.0(30)	34.0(64)	0.272
	무	44.8(26)	10.3(6)	44.8(26)	
흡 연	흡연	41.9(13)	6.5(2)	51.6(16)	0.145
	비흡연	48.3(101)	16.3(34)	35.4(74)	
여가활동	활동	50.5(108)	13.1(28)	36.4(78)	0.160
	비활동	37.5(12)	25.0(8)	37.5(12)	

주) 단위: 백분율, 괄호 안은 응답자수  
\*p-값은 카이제곱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

### 6. 연구대상자의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표 6은 연구대상자들의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의치 총 사용기간의 경우 5년 이하인 경우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42.2%로 6-10년인 경우의 53.2%, 11년 이상인 경우 51.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p=0.014), 현재의치 사용기간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의치제작 횟수가 증가할수

록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24), 지난 1년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이 없는 군에서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2.3%로 활동제한 경험이 있는 군의 23.3%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1). 또한 의치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군의 경우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63.5%로 비싸다고 생각하는 군의 28.2%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0).

〈표 6〉 연구대상자의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특 성	구 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p-값*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못함	
의치종류	한악만 부분 또는 완전의치	45.7(32)	17.1(12)	37.1(26)	0.868
	상하악 부분 및 완전의치	48.3(28)	13.8(8)	37.9(22)	
	상하악 모두 부분의치	46.4(26)	17.9(10)	35.7(20)	
	상하악 모두 완전의치	54.8(34)	9.7(6)	35.5(22)	
의치 총 사용기간	5년 이하	42.2(35)	24.1(20)	33.7(28)	0.014
	6-10년	53.2(25)	17.0(8)	29.8(14)	
	11년 이상	51.3(59)	7.0(8)	41.7(48)	
현재의치 사용기간	1년 이하	37.7(20)	18.9(10)	43.4(23)	0.000
	2-5년	41.5(49)	20.3(24)	38.1(45)	
	6년 이상	68.5(50)	2.7(2)	28.8(21)	
의치제작 횟수	1회	53.4(55)	21.4(22)	25.2(26)	0.024
	2회	48.8(40)	9.8(8)	41.5(34)	
	3회 이상	43.9(25)	10.5(6)	45.6(26)	
의치진료기관	치과병(의)원	45.4(83)	15.3(28)	39.3(72)	0.181
	무자격 구강진료업소	58.7(37)	12.7(8)	28.6(18)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	유	46.2(60)	15.4(20)	38.5(50)	0.683
	무	51.7(60)	13.8(16)	34.5(40)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	유	23.3(7)	20.0(6)	17(56.7)	0.011
	무	52.3(113)	13.9(30)	33.8(73)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	비싸다	28.2(29)	19.4(20)	52.4(54)	0.000
	적당하다	63.5(87)	10.2(14)	26.3(36)	

주) 단위: 백분율, 괄호 안은 응답자수

\*p-값은 카이제곱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

## 7.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치관련 특성 등 17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의치만족도 관련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이었으며, 의치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의치 총 사용기간이 증가할수록 의치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 여가

활동이 있는 경우 의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3.7%이었다.

표 8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이었으며, 무학인 경우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제작 횟수가 증가할수록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으며, 의치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7.3%이었다.

〈표 7〉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특 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회귀계수	t-값	p-값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 (적당하다)	0.429	0.083	0.302	5.182	0.000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유)	-0.542	0.120	-0.268	-4.508	0.000
교육수준(무학)	-0.309	0.082	-0.217	-3.747	0.000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유)	-0.269	0.082	-0.191	-3.263	0.001
생활비 조달(자녀)	0.274	0.088	0.181	3.108	0.002
여가활동(활동)	0.369	0.119	0.180	3.103	0.002
의치 총 사용기간	-0.009	0.003	-0.155	-2.713	0.007
설명력	수정결정계수(Adjusted R <sup>2</sup> ) = 0.337				
모형의 유의도 p=0.000					

〈표 8〉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특 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회귀계수	t-값	p-값
교육수준(무학)	-0.776	0.160	-0.306	-4.844	0.000
의치제작 횟수	-0.295	0.070	-0.265	-4.238	0.000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 (적당하다)	0.457	0.160	0.180	2.856	0.005
설명력	수정결정계수(Adjusted R <sup>2</sup> ) = 0.173				
모형의 유의도 p=0.000					

8.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

표 9는 대상자들의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사용의치에 만족하는 대상자의 경우 62.8%가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반면 보통인 군에서는 25.0%가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표 9〉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

구 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p-값**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못함		
의치만족도*	만 족	62.8(103)	13.4(22)	23.8(39)	0.000
	보 통	25.0(17)	17.6(12)	57.4(39)	
	불만족	-	14.3(2)	85.7(12)	

\*5점 Likert 척도 평균을 불만족(1.0~2.5), 보통(2.5~3.5), 만족(3.5~5.0)으로 재범주화 하였음.

\*\*p-값은 카이제곱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

#### IV. 고 찰

Wilson과 Cleary(1995)는 구강증상이 구강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결정하며, 이를 통하여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의치장착 노인들에서 의치는 구강증상 및 구강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장익준 등, 2006),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인의 안녕이나 생활 만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신은영, 1996).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객관적 구강상태 요인, 구강보건 의식 행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김영남 등, 2005), 노인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관련 요인들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의치장착 노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을 조사하고,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연관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의치만족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74로 류동희 등(2000)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 3.24점 보다 더 낮고, 최순례 등(2005)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43점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고, 류동희 등(2000)은 대학병원 치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최순례 등(2005)은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조사대상자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치만족도에서 교육수준, 동거가족형태, 생활비 조달, 여가활동 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짐을 볼 수 있었고, 동거가족형태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의치관련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 현재의치 사용기간, 의치제작 횟수,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의치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의치제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의치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의치가 잇몸을 누르거나, 의치가 잘 맞지 않아서 방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의치만족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의치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의치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 교육수준, 의치관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 생활비 조달, 여가활동, 의치 총 사용기간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nne와 Mehar(1983)는 의치 적합도를 판정하는데 있어 의치의 질과 여러 가지 구강상태 요인이 비슷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의치만족도가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치관련 특성, 객관적 구강상태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경우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8%로 최순례 등(2005)이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 35.1%, 김영남과 권호근(2004)이 우리나라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27.1%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두 연구가 기초생활수급대상노인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생활비 조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의치관련 특성에서는 의치 총 사용기간, 현재의치 사용기간, 의치제작 횟수,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관련 요인을 살펴본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수준, 의치제작 횟수,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치제작 횟수가 적을수록, 의치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남희 등(2006)은 틀니 여부나 저작

상태, 구강내 자각증상, 사회적 관계가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영남과 권호근(2004)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도는 구강내 동통이나 증상 범주보다 저작 능력과 언어사회적 관계 범주와 연관성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의치사용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익준 등(2006)의 결과와 부합하였다. 노인들에 있어 구강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치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한 조사결과로 연구대상이 중소도시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모든 의치장착 노인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킨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의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평가는 객관적인 지표보다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의치장착 노인의 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향후 노인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치장착 노인 246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2007년 8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별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 대상자들의 의치만족도는 평균  $3.74 \pm 0.69$ 이었으며, 교육수준, 동거가족형태, 생활비 조달, 여가활동여부, 현재의치 사용기간, 의치제작 횟수, 의치관

리를 위한 치과방문 경험,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8%이었고, 생활비 조달, 의치 총 사용기간, 현재 의치 사용기간, 의치제작 횟수,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이었고, 연간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경험, 교육수준 순이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3.7%이었다.
4.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수준이었으며, 의치제작 횟수, 의치가격에 대한 견해 순이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17.3%이었다.
5.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의치만족도가 높은 대상자들일수록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김남희. 노인의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남희, 김현덕, 한동현, 진보형, 백대일. 서울지역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의 주관적 구강증상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2):141-150, 2006.
- 김영남, 권호근. 저소득층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8(2): 257-265, 2004.

- 김영남, 권호근, 정원균, 조영식, 최연희. 한국 성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과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9(3):250-260, 2005.
-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재재개정판. 고문사, 2004.
- 류동희, 윤수홍, 송근배, 조광현, 정성화. 대학병원 치과 환자들의 가철성 의치 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4(2):159-170, 2000.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7.
- 반용석, 송근배, 정성화, 조광현. 치과의원 환자들의 가철성 의치 사용에 대한 만족도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5(1):79-94, 2001.
- 서순규. 성인병. *고려의학*, 1992.
- 신은영. 노인의 인지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0(2):135-145, 1996.
- 양정승, 김설희, 김동기. 광주광역시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의치만족도와 의료서비스 만족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3):292-302, 2006.
- 장익준, 정성화, 박영애, 이희경, 송근배. 가철성 의치 장착 노인의 의치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0(3):360-369, 2006.
- 최순례, 정성화, 배현숙, 유영아, 최연희, 송근배.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수혜자의 의치 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만족도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9(4):474-483, 2005.
- Boretti G, Bickel M, Geering AH. A review of masticatory ability and efficiency. *J Prosthet Dent*, 74(4):400-403, 1995.
- Manne S, Mehar R. Accuracy of perceived treatment needs among geriatric denture wearers. *Gerontology*, 2:67-70, 1983
- Roth SF, Heo G, Varnhagen C, Glover KE, Major PW. Job satisfaction among Canadian orthodontist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23(6):695-700, 2003.
- Willits FK, Crider DM. Health rating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later middle years. *J Gerontol*, 43(5):172-176, 1988.
- Wilson IR, Cleary PD. Linking clinical variables with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s. *J Am Med Assoc*, 273(1):59-65, 1995.